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을 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팔딱팔딱 뛰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옛날 어떤 마을에 사는 처녀가 얘기를 배고 말했다. 부모는 놀라 딸을 다그쳤다. "어느 놈의 자식이냐?" 딸은 궁지에 몰려 대답이 궁색한 나머지 그만 엉뚱한 이름을 대고 말했다. "둥네 윗 절의 백은스님이예요." 놀랍기 이를 데 없는 소리였다. 덕이 높은 스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닌가? 부모는 화가 나서 당장 스님을 찾아갔다. 그러나 평소 존경하던 스님이었는지라 부모는 점잖게 말하였다. "미거한 딸을 돌보아 주시어 스님의 혈육을 임태하게 되었습시다." 그러자 스님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 그래요?" 할 뿐이었다. 마침내 딸이 아들을 낳았다. 그동안 꼭 잡고 있었던 부모는 울화가 치밀어 당장 찾아가서 스님의 멍살을 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고향을 질렀다. 그러자 스님은 "아, 그래요?" 할 뿐 그 딸의 입장을 생각하여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되니 괴로워진 딸이 진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부모

님에게 고하였다. 진실이 밝혀지자 부모님은 백은 스님에게 한 일이 너무나 미안하여 스님을 찾아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백은 스님은 "아 그래요?" 하며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나에게 대한 오해가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는 결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심지어 너무 억울하여 엉엉 울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백은 스님의 이야기처럼 내가 한 일이 아니면 결국 그 오해가 풀릴 것이므로 화를 낼 필요가 없고, 내가 한 일이면 그 일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여 오해를 풀면 되고,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므로 역시 큰 소리가 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억울하게 역모의 누명을 쓰고 또는 역모를 피하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과연 저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 억울하더라도 억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누명이라면 결국 벗겨질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면 죽을 앞에 차라리 의연한 모습이 나올 것이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안쓰럽고 비겁하다. 그와 같은 순간에 온전히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닭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생활 속에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을 때, 그 때 꼭꼭 참고 지켜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 남의 사정도 모르고 남의 말이라고 너무 쉽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천천히 자결할 만큼 억울하고 원통할 때,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한다. 자유유법은 이론이 아니다. 말로는 주님의 뜻이 어떻다니 잘 따들면서도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팔딱팔딱 뛰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모르는 승리제단 식구는 없을 것이다.*

수녀의 요가 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연일 폭염과 무더운 열대야가 이어지는 8월이지만 더위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입추가 지나고 말복도 지났다. 폭염은 지나가지만 진정한 위험한 것은 불규칙한 생활습관에 무더위로 인한 불쾌지수의 상승이 더해져 쌓인 스트레스(독소)이다. 독소가 쌓여 경직되고 굳은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할 때이다. 내 몸의 근육이 짧아지고 굳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살리는 데는 요가보다 좋은 것이 없다. 영생 길에 가장 필수적인 몸 관리 여행으로 우리 함께 떠나보자.

강화, 넓적다리 강화, 어깨통증예방 운동, 협업 강화. **팁:** 무릎과 무릎사이를 붙이도록 노력한다. **동작①:** 등대고 누워서 무릎을 직각으로 세우고 어깨 넓이로 넓힌다. 어깨와 골반을 바닥에 붙인다. **동작②:**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 허리 등 순서로 끌어 올린다. 무릎은 하늘을 향하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상태로 복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수축한다. 들숨날숨을 반복한다. 10초 유지 5회.

폐를 튼튼히, 동안 얼굴로!!

효능: 폐 용량을 높여주고, 척추 골반 허리부분 균형감 강화, 감상선을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 활성화로 불면증 해소.



다리자세 = 종합 비타민

효능: 종합비타민 효과, 골반 하체근형으로 혈액순환에 도움, 호흡기, 신장



사회자 김종만 승사

제85회 성탄절 행사

요절 송경 대회

구세주 탄강하심을 경축합니다



기타를 치며 요절송을 열창하는 대구제단 라준경 승사



70돌 광복절을 기념하듯 힘차게 태극기를 휘날리며 요절을 외운 마산제단의 요절 코믹 퍼포먼스



연일 연장 작업에도 불구하고 틈나는 시간을 이용하여 단결된 힘을 보여준 해동산업 천군들



대전제단을 대표한 원경재 승사



오색 한복과 함께한 돌동이 아름다웠던 본부 부인회



10인 10색의 가연으로 연출한 부산제단



국악과 어우러진 요절송이 특별했던 진해제단



행사의 마무리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장식하는 무궁화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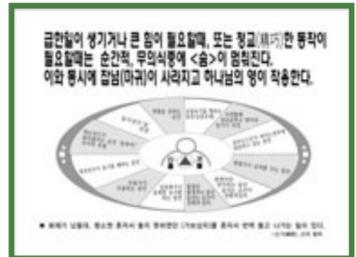
화려하고 흥겨운 분위기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무궁화 관현악단

허만욱 승사 칼럼

급할 때, 위험할 때, 정교한 동작이 필요할 때마다 왜 순간적으로 숨이 멈춰질까요?

갑자기 천정에서 쥐들이 소란을 피울 때, 뜻하지 않은 사이렌 소리에, 위급을 호소하는 비명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멈춰진다. 이와 동시에 잡념이 사라지고, 그 사태에 대비하는 모안이 곧 떠오르고, 그에 대비하는 행동이 수반된다. 그렇다면 왜 위와 같이 위급한 일이 나 급한 일이 발생할 때 반드시 숨이 멈춰 지는 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우리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숨을 쉬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와 숨을 멈추고 들어 올리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곧 이해할 수 있다. 더욱 확실한 답을 알려주는 것은 역도 도장에서 역사(力士)들이 훈련을 할 때, 때때로 "숨죽여!" 하는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틀림없이 들어 올리는 순간에 숨을 죽이라는 신호인 것이다. 또한 사격할 때 정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반드시 숨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농구선수들이 시합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슈트를 연속하는 선수를 보면 숨죽여 직전 숨을 정확하게 죽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명필

가가 아니라도, 정확한 글씨를 써야 할 경우 숨을 쉬면서 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상식이다. 이와 같은 경우, 왜 숨을 죽이게 되는지, 왜 정확한 동작을 하게 되는지, 화재가 났을 때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화재가 나면 불을 끄는 일이 급하지만 동시에 평소 잘 간직하였던 가보상자의 이동이 수반되는 것이다. 물론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단숨에 번쩍 들고 뛰쳐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되



는 것이다. 우리 몸속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공존하고 있으며, 평소엔 하나님의 영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만 일단 유사시에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지배하고 기본적인 권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게 되고, 동시에 초인간적인 괴력이 솟구쳐 올라와 무거운 물건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양심인 하나님의 영의 위력인 것이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6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부산제단 : (051)863-6307 | 마산제단 : (055)241-1161 | 사천제단 : (055)833-7866 | 광주제단 : (062)524-4555 | 神戸祭壇 : (078)862-9522 | 神奈川祭壇 : (045)451-3150 | London : (0208)894-1075 |
| 수원제단 : (031)236-8465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진주제단 : (055)745-9228 | 포항제단 : (054)292-5455 | 대전제단 : (042)522-1560 | 下關祭壇 : (0832)32-1988 | Piladelphia : (215)722-2902 | |
| 안성제단 : (031) 673-4635 | 김해제단 : (055)327-2072 | 울산제단 : (052)291-1849 | 순천제단 : (061)744-8007 | 청주제단 : (043)233-6146 | 久留米祭壇 : (0942)21-4669 | | |
| 평택제단 : (031)652-6438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진해제단 : (055)544-7464 | 정읍제단 : (063)533-7125 | 금마제단 : (063)853-6673 | 岐阜祭壇 : (0584)32-1350 | | |
| 이족제단 : (031)672-6786 | 대구제단 : (053)474-7900 | 영천제단 : (054)333-7121 | 군산제단 : (063)461-3491 | 橫濱祭壇 : (045)261-6338 | 大阪祭壇 : (06)6451-3914 |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